

## 서울·경기 4곳만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시를 빼 사실상 지방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시까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종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 구에 대한 투기지역 규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집이 안 팔려요” … 아파트 입주율 5개월 연속 하락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5%로 전월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지난달 82.4%에서 80.4%로 2.0%p 하락했고, 기타지역이 71.9%에서 70.2%로 1.7%p 낮아졌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자연이 37.5%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32.1%), 잔금대출 미확보(26.8%)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율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82.4%에서 6월 82.3%로 떨어지기 시작해 7월 79.6%, 8월 76.8%, 9월 72.6% 등으로 집계됐다.

주택산업연구원 서현승 연구원은 “대출비용 부담 증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입주율이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규제 완화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지원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아파트 입주율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입주를 위해 준비 중인 이삿짐 차량. 사진=shutterstock

한편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3p 하락한 46.3으로 조사 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 연구원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 우려와 대출비용 부담증가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9.2p(53.1→43.9), 기타지역은 0.8p(47.8→47.0) 낮아졌고, 광역시는 2.0p(44.6→46.6)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 KDI, 내년 한국 경제성장을 1%대로 하향 조정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1.8%로 하향조정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고, 투자가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2%로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KDI는 이날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을 종전 2.3%에서 1.8%로 0.5%포인트 내려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2.2%에서 3.2%로 상향조정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 또한 2.7%로 낮췄다. 이전 전망치(2.8%) 대비 0.1%포인트 하향한 수준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종전 4.2%에서 이번에

5.1%로 0.9%포인트 올려잡았다.

KDI는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가 지속되거나 중국 등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내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며 서비스 중심으로 회복되겠지만 고물가, 시장금리 상승으로 올해(4.7%)보다 낮은 3.1%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0.7%, 0.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수출도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1.6%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KDI는 특히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가 금리상승시 경기에 상당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통화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9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치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온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